



시속 150km 질주 '얼음 위 슈퍼카'

알고 보세요 - 봅슬레이



2~4명 일렬로 앉아 1300여m 트랙 질주 시간 측정
 썰매 조종 파일럿·썰매 밀고 멈추는 브레이크맨 구성
 한국, 남자 2인승 부문 원윤종-서영우組 첫 메달 도전



‘얼음 위 슈퍼카’ 봅슬레이의 시속 150km 질주가 평창에 펼쳐진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리는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에는 3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남자 2인승 부문의 원윤종(33)-서영우(27)는 홈이점을 살려 메달에 도전한다. 썰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운송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런 썰매가 스포츠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유럽에서다. 스포츠로서 썰매는 모양과 타는 방법 등에 따라 봅슬레이, 스킨레톤, 루지로 나뉘었다. 이중 봅슬레이는 1924년 제1회 프랑스 사모니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전통 있는 스포츠다. 처음에는 남자 4인승 경기만 열리다가 1932년 제3회 미국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2인승, 2002년 제19회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2인승이 추가됐다. 봅슬레이는 ‘얼음 위의 슈퍼카’로도 불린다. 언뜻 보기에 미래형 자동차처럼 생긴 봅슬레이는 그 안에 2명 또는 4명의 선수가 일렬로 앉아 보통 1200~1300m 길이의 트랙을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다.

◀서영우(왼쪽)와 원윤종.

엔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썰매 제작에는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페라리, 맥라렌, BMW, 현대자동차 등의 세계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도 홍보 효과 등을 노리고 제작에 뛰어들었다. 선수와 썰매를 합친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붙어 총 무게는 남자 2인승 390kg, 남자 4인승 630kg, 여자 2인승 350kg 이하로 제한된다.

썰매는 최대한 가벼워야 출발할 때 밀기가 수월하다. 따라서 각종 좋은 소재를 이용해 썰매를 경량화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선수들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거쳐 몸무게를 늘리는 게 일반적이다.

선수들은 맡은 역할이 다르다. 예를 들어 2인승의 앞 선수는 파일럿, 뒤의 선수를 브레이크맨이라고 부른다.

파일럿은 썰매 안쪽에 달린 로프를 이용해 썰매를 조종한다. 브레이크맨은 출발할 때 썰매를 미는 역할과 함께 피니시 라인 통과 후 썰매가 멈추도록 제동을 거는 임무를 맡는다.

사실 봅슬레이는 오랜 기간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불모지’ 소리를 듣다가 2011년 7월에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잇따랐고,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우수 인재를 끌어모았다.

썰매 종목은 초기에는 눈으로 덮인 언덕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얼음을 인공적으로 열린 트랙 위에서 시합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인증을 받은 전 세계 트랙은 총 16군데로 트랙이 저마다 제각각이다.

평창올림픽이 열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가장 최근인 2016년 10월 완공됐다. 트랙의 총 길이는 1659m지만 시합은



1376m 구간 내에서 치른다. 시작 지점의 고도는 950m, 마무리 지점의 고도는 850m다. 출발할 때 험한 썰매를 밀 뒤 올라타는 데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가장 무거운 남자 4인승 부문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 안팎에 이른다. 올림픽에서는 이들을 결정한 4차 시기 주행의 기록을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가린다. /연합뉴스

광주FC 'FA컵 4강 돌풍' 3명 영입

박완선·김경연·이인규
 수원 FC 루키 류언재도

광주 FC가 지난해 FA컵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목포시청 3인방'에 이어 수원 FC에서 '미완의 루키' 수비수 류언재를 영입하며 2018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다. 광주가 지난 2일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골키퍼 박완선(27)과 미드필더 김경연(25), 수비수 이인규(25)는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목포시청을 FA컵 4강에 올려 놓은 주역들이다.

특히 박완선(183cm·83kg)은 2017시즌 내셔널리그가 낳은 최고의 스타플레이어이다.

2013년 울산 미포조선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박완선은 2년간 18경기 출전, 육군 만기 전역이라는 부족한 경력에도 팀을 FA컵 4강으로 이끌었다.

박완선은 침착성과 순발력, 1대1 방어 가점점으로 FA컵 8강 상대였던 성남 FC와 4강에서 만나 울산 현대를 상대로 40여 개의 유효 슈팅 가운데 단 1골만 허용하며 이적을 끌었다.

박완선의 안정적인 경기운영과 선방 솜씨에 반한 팬들은 그에게 '목론'(목포시청+루키)이라는 애칭을 붙이기도 했다.

김경연은 173cm·74kg의 다부진 몸으로 정확한 왼발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다. 광주 U-18팀인 금호고를 거쳐 건국대를 졸업했으며, 2015년 목포시청에 입단해 3년간 54경기를 소화했다. 주 포지션은 미드필더이지만 공수 가담은 물론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다. 많은 활동량과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의 조직력을 극대화한다는 평가를 받는 김경연은 2014 덴소컵 한일대학대표팀에 뽑



광주 FC가 2018시즌을 위해 영입한 류언재(왼쪽부터), 박완선, 김경연, 이인규. <광주 FC 제공>

혔고, 2017 내셔널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이인규는 185cm·78kg의 탄탄한 체격으로 큰 키를 이용한 헤더와 스피드가 장점이다. 2014년 자유계약으로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한 이인규는 2015년 목포시청으로 임대 후 완전 이적했다. 주 포지션은 공격수지만 목포시청으로 이적해 수비수로 전향, 69경기를 뛰었다. 안정적인 수비력의 이인규는 공격에도 적극 가담해 2016 내셔널리그 선수권대회 득점왕(5경기 3골)을 받았다.

목포시청 3인방은 입단 인터뷰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포시청의 FA컵 4강 진출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광주의 클래식 승격으로 증명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3일에는 수원 FC에서 '미완의 루키' 수비수 류언재(23)가 광주에 합류했다. 184cm·80kg의 류언재는 좋은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력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공중볼 장악이 뛰어나다. 육상선수 출신인 그는 스피드와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데 능하다는 평가다. 재학시절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한 류언재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대학선배인 이찬동(전 광주 FC)과 비슷해 '제2의 이찬동'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6년 인천대의 장단 첫 U리그 권역 우승을 이끌며 우수선수상을 받은 류언재는 이듬해 수원 FC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지만, 부상으로 1경기 출장에 그쳤다.

류언재는 "잘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서서 부상을 입었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며 "광주는 새로운 도전의 무대다. 신인의 자제로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8일 경남 창녕 스포츠타운으로 이동해 1차 전지훈련을 치른다. 25일까지 국내에서 호흡을 맞추는 광주는 이후 일본으로 2차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산업화·통합마케팅 기초 다질 것”

정운찬 신임 총재 로드맵 발표

한국프로야구의 수장에 오른 정운찬 신임 KBO총재가 재임 3년간 추진할 업무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 총재는 3일 서울 양재대리위에서 열린 KBO 총재 이·취임식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3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총재는 “프로야구가 40세, 불혹이 되는 2021년에 초점을 맞춘다”며 “2020년까지 3년간 KBO리그를 더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프로스포츠 리그로 만들어 2021년을 맞이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KBO조직 정비와 역량 강화, 제도 개선, 클린 베이스볼의 구체적인 실현, 144경기 경쟁력 강화, 외국인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총재는 “내년에는 중계권 가치 평가와 합리적으로 평가 받는 계약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 수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

이겠다”고 2년 차 추진 과제를 설명한 뒤 “3년 차인 2020년에는 메이저리그 성공의 바탕이 된 MLB닷컴과 같은 KBO닷컴을 만들어 한국프로야구 통합마케팅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사건이 집중된 사무총장 선임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재는 “갑자기 총재에 취임하게 돼 적임자를 찾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제

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무는 많이 도와줄 사무총장의 임무가 중차대하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며 공모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부 입김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공언했다.

정 총재는 보수를 받겠다고 한 이우도 구제적으로 밝혔다. 그는 “KBO총재를 맡으면 다른 수입원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에서 보수를 받겠다고 했다”며 “내가 솔선해서 연봉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겠다고 한 건 프로야구의 산업화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케인이 70분 가까이 자리를 비우면서 손흥민이 자신의 무대로 만들 수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공격포인트 없고

신태용 감독 앞에서 ‘잠잠’

기성용 벤치만 지켜

손흥민(26·토트넘)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기성용(29·스완지시티)은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3일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과 스완지시티의 경기에서다.

이날은 러시아 월드컵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직접 경기장을 찾았다. 유럽파 선수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소득은 없었고 ‘코리안 데비’는 성사되지 않았다.

기성용은 종아리 부상으로 5경기째 그

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상이라 여겨졌지만, 출전하지 못하는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부상 정도에도 우려가 나온다. 무릎 염증 제거 수술로 시즌 초반을 아예 건너뛴 뒤 간신히 경기 감각을 회복했던 차에 찾아온 부상이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손흥민은 어렵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2017년 마지막 경기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1골, 2어시스트의 더할 나위 없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특히, 이날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70

분 증세로 후반에 출전하면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최근 손흥민에 대해 “해리 케인 등 엄청난 활약을 하는 팀 동료들에 밀려 주목도가 떨어진다”며 “마치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옆에서 뛰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케인이 70분 가까이 자리를 비우면서 손흥민이 자신의 무대로 만들 수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